

# 광주 자공고 명맥 잇나

(자율형 공립고)

###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준치 기존 광주일고·광주고·상일여고 자공고 2.0 신청 추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광주지역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명맥을 잇게될지 관심이 모은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자율형 공·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 제일고와 광주고, 상일여고 등 3개 자공고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공고는 2009년에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맞서 공립고교에서도 우수 학생들을 길러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자공고는 학사운영과 교과 운영, 교사 활동 등에서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장을 공모하고 우수교원 초빙도 가능해 주목받았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우선(선지망) 선발했던 광주지역 자공고는 한때 평균 경쟁률이 3대1 이상을 웃돌기도 했다.

상일여고의 경우 우수학생이 몰려 신입생 경쟁률이 5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자공고의 핵심인 학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는 등 사실상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

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 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이를 백지화했다.

정부는 자공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 개정에 따라 자공고 변경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공고인 광주 제일고와 광주고, 상일여고가 자공고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공고로 지정되면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청에 학교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친 학교를 교육부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자공고 부활취지가 인재를 길러내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면서 "자공고가 교육과정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 학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는 자율형사립고는 없다. 지난 2009년 자사고로 전환했던 송원고가 2020년 일반고로 복귀했고 보문고와 송덕고도 2010년에 자사고로 전환했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변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이 17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내 아시아박물관 문화교육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단편소설 부문 유재연씨, 시 부문 엄지인씨, 동화 부문 정화영씨, 광주일보 최재호 전무이사·편집총괄국장.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신인작가 등용문'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 단편소설·시·동화 3부문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17일 오후 4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내 아시아박물관 문화교육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비가 내리는 등 늦은 날씨에도 수상자와 가족, 광일신춘문학회 회원, 문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유재연 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엄지인 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정화영 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 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최재호 전무이사·편집총괄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창간 이래부터 진행해 온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라며 "창작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선자의 결실을 이룬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일보는 신문 지면과 문화전문매거진 월간 '예향'을 통해 신인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비롯해 책 발간 소식 등을 보도해왔다"며 "앞

으로도 신춘문예 외에도 호남 문학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는 시 1613편, 소설 172편, 동화 147편 등 1932편이 투고됐다. 작품 투고는 예년과 비슷한 현황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SF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거나 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많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응모자들은 광주·전남 외에도 전국 각지에 분포할 만큼 다양했는데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영남, 충청, 제주 등에서 투고한 이들과 외국에서 작품을 보내온 응모자도 있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아파트 화재' 맞춤형 피난대책 추진

광주가 전국에서 아파트 주거비율이 가장 높지(65.5%)만 화재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보도(2023년 12월 28일자 광주일보 6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와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1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

TF팀은 광주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아파트별로 화재 피난시설이 다르게 설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피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아파트에는 관련법 변화에 따라 설치된 피난 시설이 다르다.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화재 시 부수고 탈출할 수 있는 '경량형 칸막이'가 없으며, 2005년 이전 건물에는 '대피 공간'이 없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층으로 피난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는 2010년부터 등장했으며,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 아파트에만 설치돼 있다.

TF팀은 광주시 내 아파트 1222단지 중 소방·피난 시설별로 분류하고 각 아파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을 바탕으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전남소방본부 또한 지난 5일 도내 아파트 1316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피해확산 방지대책'을 세웠다.

전남소방본부는 현 아파트 화재 대응책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의 피난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 방화문이 열려 있어 연기 확산을 막지 못하는 점, 대피 과정에서 오히려 연기를 흡입해 발생하는 사상자가 전체의 40여%에 달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2월까지 방화문 폐쇄 차단 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불이 난 층의 바로 위 2-3개 층을 제외하면 대피하지 않고 연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에서 대기하는 등 개선된 피난 대책을 안내할 방침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주택 거러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각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도 추진 중이라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전남 추위 주춤...20일까지 비

광주·전남지역에 겨울비가 20일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9일 까지 최대 30mm의 비가 내린다"고 17일 예보했다.

비는 19일 오전 중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 들어 목포, 무안, 영암, 진도, 완도 등 해안 지역에서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인 20일에는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광주·전남 전역에 다시 빗방울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또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오르면서 서늘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에 분포해 평년(아침최저기온 영하 4.9-0.0도, 낮 최고기온 4.8-8.0도)기온을 웃돌았다.

19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 8-10도를 보여 추위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린 뒤 높은 산지와 지면온도가 낮은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은 도로에 일명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하고,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장기 방치 차량 집중 단속 광주 서구 22일까지

광주시 서구가 공영주차장 및 장기 주차 자동차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서구는 오는 22일까지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및 방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장기 방치된 노후 차량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이나 연속 3회 이상 불법 주차로 단속된 차량을 장기방치 차량으로 판단하고 이동 안내 및 차량 견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구는 지난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679대 중 539대를 자진이동 통보했으며 140대를 견인 등 강제처리했다.

서구 관계자는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